

〈일반논문〉

조선왕실 혼례의 사례와 그 의미*

신 병 주 **

〈목차〉

- I. 머리말
- II. 六禮에 의거한 혼례 절차
- III. 조선전기 왕실 혼례의 주요 사례
- IV. 조선후기 왕실 혼례의 역사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왕실 혼례의 주요한 사례들을 개관해 보았다. 왕실 혼례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지위에서 혼례식이 거행되었다는 점이다. 세자의 신분이 가장 혼할 것처럼 보이나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세자의 신분으로서 세자빈을 맞이하는 경우도 적었다. 오히려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정변의 영향으로 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조선전기에는 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과 같은 왕실의 정변뿐만 아니라, 예종이나 성종의 즉위에서 볼 수 있듯이 후계자 계승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16세기 왕실 혼례의 경우에도 왕실의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증종반정이나 왕실 방계에서 즉위한 선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왕세자의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분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왕세자빈을 맞이한 후 왕위에 오르는 전형적인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이었다. 특히 16세기에는 『주자가례』가 급격히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왕실 혼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친영 의식이 강화되어가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왕실 혼례식은 그 틀을 잡아 가면서 정형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시기별로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조선후기 왕실 혼례의 절차와 혼례행렬 등 화려하고 엄숙한 혼례 모습을 접할 수 있다.

□ 주제어

혼례, 왕위 계승, 가례도감의궤, 친영, 주자가례

I. 머리말

최근 조선시대 왕실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수행이 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의 흐름과 함께 이를 현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다. 왕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왕실 의례 전반에서 시작하여, 시기별, 분야별로 세부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이 되어 왔다. 필자는 기존 연구 성과의 바탕 위에서 왕실 혼례식의 전체적 개관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왕실 혼례식의 의례 절차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이 되었지만, 혼례의 사례 전체를 개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왕실 혼례는 왕이 세자의 지위, 왕의 지위, 왕자의 지위 등 다양한 지위에 있을 때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그만큼 조선왕실의 왕위 계승에 변수가 많았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조선왕실 혼례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禮 이념의 정비 및 구현과 관련한 연구를 비롯하여,¹⁾ 혼례식 전체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연구,²⁾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통과 의례 과정에서의 혼례식,³⁾ 儀軌를 활용한 혼례식 연구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五禮 중 嘉禮의 주요 의례인 혼례식의 예법과 구체적인 거행 절차 및 왕비 혼례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특히 의궤를 활용한 혼례 연구에서는⁵⁾ 班次圖를 통한 혼례식의 생생한 모습이나 참여한 인원, 복식, 儀仗에 대한 세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⁶⁾ 그러나 혼례의 사례 전체를 개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필자는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했던 조선왕실 혼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례의 경우 이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왕실의 혼례가 세자, 왕, 세손 등의 지위의 차이에 따라 행해지는 양상이나, 혼례식 때의 연령, 왕비 가문의 위상 등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면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 1) 강문식, 「태종에서 세종대 許稠의 예제 정비와 예 인식」, 『진단학보』 105, 2008; 백주연, 「조선초기 王室婚禮의 정비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이범직, 『한국중세 禮사상 연구』, 일조각, 1991;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지두환 외,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 국립고궁박물관, 2015.
 - 2) 김문식, 「조선왕실의 親迎禮 연구」, 『조선왕실의 가례』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신병주 외, 『왕실의 혼례식 풍경』, 돌베개, 2013.
 - 3) 심재우 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심승구, 「왕실 혼례의 추이와 특성- 숙종·인현왕후 가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1, 2007.
 - 4)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돌베개, 2001.
 - 5) 한영우, 『조선왕조의 의궤』, 일지사, 2005; 김문식·신병주,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6) 이성미, 『嘉禮都監儀軌와 미술사- 왕실 혼례의 기록』, 소와당, 2008.

조선시대 왕은 대개 왕세자의 신분으로 혼인을 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왕비는 왕세자빈에서 왕비로 올라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조선시대 27명의 왕과 49명의 왕비 중에서,⁷⁾ 왕세자빈으로 혼례를 치르고 궁에 들어가 왕비가 된 예는 6명이 있을 뿐이고, 결혼한 후 변칙으로 남편이 왕이 되어 왕비가 된 예는 11명이나 된다.⁸⁾ 폐비가 8명이나 되고, 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왕비가 된 사례는 7명이나 된다. 이외에 생전에 왕비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사후에 추존된 왕비들이 있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두 번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전례를 남겼다.

현대에도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데 친인척들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623년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서인 세력이 국정의 첫 과제로 ‘無失國婚’을 내세운 것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 조선의 왕비 중에는 昭惠王后나 仁敬王后, 仁顯王后처럼 최고의 가문에서 왕비로 간택된 이도 있었지만, 貞純王后나, 明成皇后의 경우처럼 비교적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나 일약 왕비의 지위에 오른 인물도 있었다.

왕은 대개 왕세자 시절인 10대 초반에 혼인을 하였다. 왕세자빈의 나이가 또한 왕세자와 비슷한 10대 초반이었고, 연상인 경우도 많았다. 영조의

7) 조선의 왕비는 정비와 계비, 그리고 폐위된 왕비까지를 포함하면 총 43명이 된다.

또한 아들이 왕이되어 남편이 왕으로 추존되면서 사후에 왕비로 추존된 소혜왕후(덕종), 공성왕후(광해군), 인현왕후(원종), 효순왕후(진종), 헌경왕후(장조), 신정왕후(문조)를 포함하면 49명이다. 의경세자, 효장세자, 사도세자의 혼인 사례 또한 왕실 혼례식의 주요 사례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8) 왕세자빈, 왕비, 대비의 3단계 전 과정을 모두 거친 왕비가 현종의 왕비 明聖王后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조선왕실의 혼례에 그만큼 변수가 많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9) 이견창, 『黨議通略』, 인조조.

“세상에 전해 오기를 반정 초에 공신들이 모여 맹세할 때 두 가지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왕실 혼인을 놓치지 말자(無失國婚)’와 ‘재야 학자를 추천하여 장려하자(崇用山林)’는 것이다.

正妃 정성왕후,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는 남편보다 연상이었다. 그런데 정비 사망 후 맞이한 繼妃의 경우, 왕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 15세 전후의 신부를 간택하였다. 이러한 관례 때문에 선조와 인목왕후는 51세와 19세라는 나이 차가 났고, 인조는 44세 때 15세의 신부 장렬왕후를 계비로 맞이하였다. 영조는 66세에 15세 신부를 맞이하여 51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혼례를 성립시켰다. 어린 계비의 등장은 후계자 계승문제와 연계되어 정치사의 전개에서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였다.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왕비 가문이 세도정치의 중심에 서는 양상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왕실의 혼례 절차를 먼저 살펴본 후에,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크게 구분하여 시기별로 왕실의 혼례 사례 전체를 검토하여, 왕실의 혼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과정과 함께 변수가 생기는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위별로 다른 왕실 혼례의 사례에 주목하여, 이것이 지니는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II. 六禮에 의거한 혼례 절차

조선왕조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국가였고, 왕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엇보다 예법을 중시하였다. 성종 때 『國朝五禮儀』를 편찬하고,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예전」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왕실에서는 모범적으로 유교적 예법을 실천하도록 했다. 왕실 혼례의 기본이 된 예법은 대체로 여섯 가지 예법, 六禮였다. 그런데 육례는 왕실과 민간의 입장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禮記』의昏儀

편에는 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을 六禮로 규정하였지만, 조선중기 이후 널리 채택된 『朱子家禮』에는 議婚·納采·納幣·親迎의 네 가지 예를 혼인의 예법으로 규정하였고, 조선후기의 학자 李紱가 정리한 『四禮便覽』에도 4례만이 언급되어 있다.

한편 성종 때 완성한 『국조오례의』의 嘉禮에는 왕실 혼인의 절차에 대해 크게 왕의 경우와 왕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먼저 왕비를 맞이하는 納妃儀인 경우에는, 청혼을 하는 납채, 혼인이 이루어진 징포로 예물을 보내는 의식인 납징, 길일을 선택하는 告期,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인 冊妃, 使者를 보내 왕비를 맞이하는 奉迎, 혼인 후에 함께 술잔을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의식인 同牢의 여섯 가지 의식이 있었다.¹⁰⁾ 왕세자빈을 맞이하는 納嬪儀인 경우에는, 봉영 대신에 왕세자가 친히 왕세자빈을 맞이하려 가는 친영의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 왕비를 맞이하는 納妃儀와 차이가 있다.¹¹⁾ 왕의 혼례식에는 奉迎 의식만을 규정하여, 친영 의식이 행해지지 않았던 조선전기까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왕실 혼례에 대한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혼례가 끝난 후 혼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嘉禮都監儀軌』에는 공통적으로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를 육례로 규정하고 있음이 보인다. 嘉禮는 원래 왕실의 큰 경사를 뜻하는 용어로, 『국조오례의』에는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 정조와 동지에 會禮하는 의식, 조참하는 의식, 왕세자의 冠禮 의식,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 왕세자 책봉 의식, 왕자의 昏禮 의식, 養老宴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¹²⁾ 그러나 조

10) 『국조오례의』 권3, 嘉禮, 納妃儀.

11) 『국조오례의』 권4, 嘉禮, 納嬪儀.

12) 『국조오례의』에는 권3에 총 21개의 의식이, 권4에는 총 29개의 의식이 기록이 되어 있다. 혼례식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권4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왕비를 맞이하

선종기이후 가례는 거의 혼례와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이것은 『가례도감의궤』가 혼례식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¹³⁾

『가례도감의궤』에도 六禮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一房의 후반부에 친영 행렬을 담은 班次圖를 꼭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親迎은 혼례식의 육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친영은 지금의 예식장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에 해당한다. 『가례도감의궤』의 마지막 부분에 친영 행렬을 담은 班次圖를 꼭 그린 것은 그만큼 친영을 행사의 핵심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실에서 친영 의식에 의거하여 혼례를 치른 최초의 왕비는 중종의 계비로 들어온 문정왕후였는데,¹⁴⁾ 이것은 16세기 중엽 이후 성리학 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종은 친영 의식이 당시 사회에 정착되지 않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下諭하였는데,¹⁵⁾ 자신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친영을 직접 실천하게 되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초기부터 혼례식 총괄 기구인 嘉禮都監이 구성되었고,¹⁶⁾ 가례도감에서는 전대의 의궤 기록을 참고하여 혼례를 주관

이는 의식인 納妃儀는 권3에 기록이 되어 있다.

13)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는 1627년(인조 5)에 거행이 된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가 최초의 것이지만, 실록의 기록 등에서는 『가례도감의궤』는 조선전기부터 제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14)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년) 7월 19일.

“上具冕服，親迎王妃于太平館。”

15)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 1월 25일.

教禮曹曰：“親迎之禮，聖人所制，須要遵行。我世宗大王動慕古制，王子王女婚嫁之時，皆令親迎，欲使士大夫家，有所視效，而因循舊習，廢而不行。鄉飲酒之禮，亦禮文所載，而近不舉行，豈非闕典？自今親迎，鄉飲酒禮，其曉諭中外，一依古制施行。”

16) 가례도감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都提調는 정승직에서, 부책임자에 해당하는 提調는 판서직에서 임명되었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감은 一房·二房·三房·別工作·修理所 등으로 부서를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한 정황이 나타난다.¹⁷⁾ 그러나 조선전기 혼례식을 정리한 의궤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조선전기 왕실 혼례식의 대략적인 상황은 실록에 산견되는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다. 『태종실록』에는 “西川君 한상경으로 納徵使를 삼고, 摠制 趙休로 부사를 삼고, 예문관 대제학 成石因으로 告期使를 삼고, 제학 맹사성으로 부사를 삼았다. 세자의 납징하는 예는 말 2필과 비단 10束이다.”라고 기록하여 조선초기부터 세자의 혼례식이 육례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¹⁸⁾ 조선초기부터 왕실의 혼례식은 육례에 의거하여 거행되었고, 혼례식의 과정을 의궤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대의 의궤는 후대의 혼례식에 참고가 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는 이러한 시스템 운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Ⅲ. 조선전기 왕실 혼례의 주요 사례¹⁹⁾

1. 세자와 세자빈의 혼례

조선전기 왕실 혼례의 역사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정치적 변수들이 많았던 점이다. 장자 상속이라는 원칙을 세웠으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많지 않았고, 세조의 왕위 찬탈, 의경세자의 차남인 성종의 즉위, 중종반정, 최초로 방계에서 왕위에 오른 선조의 경우에서처럼 왕위

17) 『중종실록』, 중종 19년(1524) 3월 4일.

18) 『태종실록』, 태종 7년(1407) 7월 11일.

“壬戌/以西川君 韓尙敬爲納徵使, 摠制趙休副之 藝文館大提學成石因爲告期使, 提學孟思誠副之 世子納徵之禮, 馬二匹, 帛十束.”

계승에서 많은 변수가 있었다. 왕위 계승의 변수는 왕실 혼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본 장에서는 세자의 신분으로 세자빈과 혼인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자 혼례의 첫 사례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막내아들 의안대군 芳碩의 혼인이었다. 방석은 세자 시절 賢嬪 柳氏를 세자빈으로 맞이하였으나, 현빈 유씨는 내시 李萬과 사통했다는 혐의로 폐출되었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언하여, “內豎 李萬이 斬刑을 당하고, 賢嬪 柳氏가 내쫓겨 私第로 돌아갔으나,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함이 그치지 않습니다.”²⁰⁾고 한 실록의 기록은 왕실의 첫 혼례부터 순탄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394년(태조 3) 방석은 13세 때 심효생의 딸을 다시 세자빈으로 맞이하였다. 『태조실록』에는 “이조 典書 심효생의 딸로 세자빈을 삼았다.”²¹⁾고 짧게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세자의 혼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된 첫 사례는 1407년(태종 7) 양녕대군의 세자빈으로 金漢老의 딸을 맞아들인 것이다. 양녕대군은 3년 전인 1404년 11세의 나이로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다. “세자가 전 摠制 金漢老의 집에 친영하였다. 임금이 비가 왔으므로 임시로 臨軒醮戒를 면제하였다. 乙時에 세자가 公服 차림으로 輦을 타고, 내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러기[雁]를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書筵官·宿衛司가 모두 공복 차림으로 따랐다.”²²⁾는 기록은 조선초기부터 세자의 혼례가 예법에 맞게 실시되었음을

19) 본 장에서는 조선전기 왕실의 혼례 사례들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태조부터 광해군까지의 혼례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세자의 지위에서 거행한 혼례와 왕으로 즉위한 후 거행한 혼례, 기타 왕자의 사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20)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6월 21일.

21) 『태조실록』, 태조 3년(1394) 10월 16일.

22) 『태종실록』, 태종 7년(1407) 7월 13일.

“世子親迎于前摠制金漢老之第，上以雨權免臨軒醮戒。乙時，世子公服乘輦，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의 納嬪儀는 실제 거행된 혼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세자가 성인으로 되는 과정에는 冠禮, 冊禮, 婚禮, 入學禮가 행해졌는데, 의례의 순서는 일정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숙종은 일곱 살에 책봉례, 아홉 살에 입학례, 열 살에 관례, 열한 살에 혼례를 치루었다.²³⁾ 양녕 대군에 이어 세자의 지위로 세자빈을 맞이한 인물은 문종이다. 문종의 세자빈 간택은 세종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세자가 13세 되던 1426년(세종 8) 12월에 휘빈 김씨를 세자빈으로 간택하였다. 휘빈 김씨였다. 세자빈 김씨는 태종의 후궁인 明嬪의 조카로써 왕실의 인척 여성이었다. 그러나 세자는 세자빈보다 중전의 侍婢인 효동이나 덕금과 같은 여인을 가까이하여 세자빈의 울분을 샀다. 세자빈은 세자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사랑하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내고 그것을 술에 태워 마시게 하는 민간의 비방책 소위 壓勝術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세종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김씨는 2년 3개월 만에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우리의 祖宗은 가법이 매우 엄정하여 매양 내조의 공을 얻었다. 내가 전년에 세자를 책봉하고, 김씨를 누대 명가의 딸이라고 하여 간택하여 세자빈을 삼았더니, 뜻밖에도 김씨가 미혹시키는 방법으로써 壓勝術을 쓴 단서가 발각되었다. … 아아,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모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을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어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꺾히는

使內侍一人執雁前導，書筵官宿衛司皆以公服從。至漢老家，降輦入幄次，丁時，迎嬪以歸。初，上爲世子擇配，遣義安大君 和，知申事黃喜，詣宗廟探策，乃得漢老之女云。”

23) 심재우 외,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3, 25~30쪽.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기에 이르렀으니, …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²⁴⁾

휘빈 김씨가 폐출된 후 세종은 다시 세자빈 간택을 주도하였는데, “이제 東宮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할 때이니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하겠다. 世系와 婦德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나는 부모의 마음으로써 친히 간택하고자 하나 옛 예법에 없어서 실행할 수가 없으므로, 처녀들을 창덕궁에 모이게 하고 內官으로 하여금 시녀와 효령대군과 더불어 뽑게 하면 어떻겠는가”²⁵⁾하였다. 세자빈들을 모두 모이게 해서 신부의 용모를 고려하여 간택하라는 지시였다. 허조가 “오로지 얼굴 모양만을 취하고 덕을 보고 뽑지 않게 될 것입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세종은 “잠깐 본 나머지 어찌 곧 그 덕을 알 수 있으리오. 이미 덕으로서 뽑을 수 없다면 또한 용모로서 뽑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처녀의 집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좋다고 생각되는 자를 미리 뽑아서, 다시 창덕궁에 모아 놓고 뽑는 것이 좋겠다.”²⁶⁾고 하여 신하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세종이 세자빈 간택의 주요 기준으로 世系, 婦德과 함께 용모를 검토했음이 나타난다. 『영조실록』에도 “我朝에 와서 간택한 것이 어느 세대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비루하고 또 불경하여 단지 용모의 예쁘고 누추함과 언어의 조용하고 우아함으로써 취한다.”²⁷⁾고 한 내용이

24)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7월 20일.

25)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8월 4일.

“今爲東宮擇配, 宜妙選處女, 世系婦德, 固皆爲重, 然姿或不美, 則亦不可也. 以予父母之心, 欲親擇取, 然無古禮, 未得行之 欲令聚昌德宮, 使內官與侍女, 孝寧大君選之, 若何?”

26)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8월 4일.

27) 『영조실록』, 영조 35년(1759) 6월 4일.

보여, 조선시대 왕실의 혼례에서 용모와 언어가 간택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으로 결정된 규수는 純嬪 奉氏였다. 그러나 순빈 봉씨는 여종과 동성애에 빠지는 등 문란한 사생활이 발각되어 역시 폐출되었다. 세종은 거듭된 세자빈 폐출에 대해 자신의 不德을 한탄하는 한편, 이를 종묘에 고하도록 하였다.²⁸⁾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세종은 이런 실패의 경험 때문인지 세 번째 세자빈은 후궁 중에서 품성이 검증된 인물을 선택하였다.

조선전기 왕비 간택에서 후궁 출신을 승진시켜 왕비로 삼게 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에는 문종의 후궁을 세자빈으로 간택한 것이 큰 몫을 했다고 여겨진다. 문종의 세 번째 세자빈은 단종의 생모가 되는 顯德王后로 추존되는 권씨였다.²⁹⁾ 그러나 세자빈은 단종을 출산한 직후 사망하였고,³⁰⁾ 문종은 이후 세자 시절은 물론이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왕비를 맞이하지 않아 조선의 왕 중 현왕으로 있으면서 왕비가 없는 유일한 왕이 되었다.

세조의 장남인 懿敬世子는 1455년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세자로 책봉되었고, 세조의 잠저 시절에 세자와 혼인했던 韓確의 딸(후의 소혜왕후)은 세자빈의 지위에 올랐다.³¹⁾ 의경세자는 1457년 사망하면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고 성종 즉위 후에 德宗으로 추존되었다. 예종은 형 의경세자 사망 후에 8세 때 세자의 자리에 올랐고, 세자의 지위에 있던 1460년 한명회의 딸(후의 章順王后)과 혼례를 치루었다. 오랜만에 거행된 세자의 혼례였던 만큼 실록에서는 이때의 친영례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28) 『세종실록』, 세종 18년(1436) 10월 16일.

29) 『세종실록』, 세종 19년(1437) 2월 28일.

30) 『세종실록』, 세종 23년(1441) 7월 24일.

31) 『세조실록』, 세조 6년(1460) 4월 11일.

「親迎하는 날 내시부에서 전하와 중궁의 어좌를 宮中에 설치하고, 儀仗을 殿庭의 동서에 설치하고 사옹방에서 饌卓을 준비한다. 전하는 遠遊冠과 絳紗袍를 입고 중궁은 예복을 입고 나가면 음악이 연주되고, 어좌에 오르면 음악이 그친다. 왕세자가 면복을 입고 贊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殿의 東門을 지나 들어가 殿庭의 拜位에 나아가고, 찬자가 ‘鞠躬하라.’고 창하면, 음악이 연주되어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 ‘禮가 끝났다.’고 찬하면,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袞冕을 거두고,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어 입고 친영례를 행한다.’³²⁾

1460년 세자로 있던 예종과 혼례를 치른 장순왕후는 1461년 세자빈의 지위에서 1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에 세조는 1462년 두 번째 세자빈으로 한백륜의 딸(후의 安順王后)을 간택하였다. 안순왕후는 세자의 후궁으로 있다가 세자빈을 거쳐, 1468년 예종 즉위 후 왕비에 올랐다.³³⁾ 세자의 후궁이나 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세자빈 또는 왕비로 승진하는 사례는 안순왕후 이후 중종의 계비가 되는 章敬王后까지 이어지는 사례로, 조선 전기 계비 대부분은 후궁에서 승진이 되는 과정을 겪었다.³⁴⁾

안순왕후의 배출로 청주 한씨는 의경세자와 예종의 두 명의 세자빈까지 합하여, 세 명의 세자빈을 연속 배출하게 되었다. 안순왕후는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예종의 사후 왕위 문제로 다시 변수가 생겼다. 다음 왕위가 예종의 아들인 齊安大君에게 돌아가야 했으나, 대비인 정희왕후 윤씨는 4살인 제안대군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의경세자의 둘째아들 者乙山君에게 왕위를 넘

32) 『세조실록』, 세조 6년(1460) 4월 18일.

33)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1468) 9월 8일.

34) 윤혜민, 「조선전기 繼妃 선정 방식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이미선, 『조선왕실의 후궁』, 지식산업사, 2021.

겨주었다. 대왕대비 윤씨와 한명회와의 정치적 결탁의 결과였다. 자을산군과 왕자 시절에 혼인했던 한명회의 딸은, 자을산군이 성종이 되면서 왕비(공혜왕후)가 되었다. 그러나 1474년 공혜왕후가 요절하면서 자리가 비게 된 왕비의 자리는 후궁으로 있던 숙의 윤씨(폐비 윤씨)가 계승하였다. 안순왕후에 이어 후궁 승진 사례가 이어진 것이었다.

성종 이후 세자의 신분에서 세자빈을 맞이한 왕은 연산군이다. 성종과 齊獻王后(폐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연산군은 1482년 8세의 나이로 세자에 올랐고, 세자 시절인 1487년 거창 신씨 신승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하였다. 『성종실록』에는 성종이 직접 승정원이 전지를 내려 병조판서 신승선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을 것을 지시한 내용이 나타난다.³⁵⁾ 그리고 1488년 윤1월 26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冊嬪禮를 행하였다.³⁶⁾

중종은 1506년 반정에 의해 바로 왕이 되었으므로, 왕세자의 지위가 있는 적이 없었고, 왕이 된 직후 대군 시절 혼인한 단경왕후가 폐위된 후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 정경왕후와 문정왕후를 각각 계비로 맞이하였다. 인종은 중종의 장자로서, 1520년 6세의 나이로 세자로 책봉된 후, 1524년 (중종 19) 3월 10세의 나이로 나주 박씨 박용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다. 1523년 10월 경연에서 李荇이 ‘세자빈을 간택하여 미리 양성해야 한다.’고 하자, 중종은 그 말이 매우 좋다. 세자는 10세가 되지 않아서 일찍이 혼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나, 그 배필은 일찍이 간택하여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다.”³⁷⁾고 하면서 세자빈의 간택을 알아보도록 조치하였고, 1524년 3월 세자빈이 책봉되는 상황이 『중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³⁸⁾ 세자빈은 1544년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인성왕후)가 되었다. 인종의 이복동

35) 『성종실록』, 성종 18년(1487) 3월 1일.

36) 『성종실록』, 성종 19년(1488) 윤1월 26일.

37) 『중종실록』, 중종 18년(1523) 10월 3일.

38) 『중종실록』, 중종 19년(1523) 3월 2일; 3월 6일.

생 경원대군은 아직 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부인은 仁順王后가 되었다. 인순왕후는 1542년 경원대군의 부인으로 있다가 1545년 남편이 왕이 되자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1568년 왕위에 오른 선조는 중종의 서자인 德興君의 아들이자 河城君의 지위에 있다가, 명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선조는 傍系 출신으로 최초로 왕위에 오르게 된 사례이다.

2. 왕과 왕비의 혼례

조선전기 왕의 지위에서 혼례를 한 왕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왕실의 혼례 적령기가 10대 초반이었기에, 세자 시절의 혼레이거나, 아니면 왕자의 신분으로 혼례를 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왕의 신분으로 혼례를 한 첫 왕은 단종이며, 첫 왕비가 사망한 후 계비를 맞이한 예종과 성종, 중종이 왕의 지위에서 혼례식을 가졌다.

문종이 37세의 나이로 승하하면서, 1452년 단종(1441~1457)은 1452년 5월 18일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혼례를 치루지 않은 상태였는데, 1454년 1월 22일 定順王后 송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아직 3년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단종이 혼례를 올리게 된 데는 당시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던 수양대군의 권유가 컸다. 『단종실록』에는 경복궁 근정문에서 왕비가 책봉을 받는 과정과 의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勤政門에 나아가서 효령대군 李補·호조 판서 조혜를 보내어 송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예가 끝나자, 도승지 崔恒에게 명하여 근정전 남쪽 뜰에 나아가서 두 媵氏의 官敎를 宗簿寺判事 宋翠·濟用監判事 이연기에게 주어서 보냈다. 冊妃儀와 納采儀는 같다. 왕비가 책봉을 받는 의식은 이러하였

다. ...」³⁹⁾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은 실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되는 부분은 친영 의식 대신에 使者를 보내 왕비를 맞이하는 奉迎 의식을 진행한 점이다. “왕비를 봉영하기 전 1일에 忠扈衛에서 媵氏의 막차를 妃氏의 中門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잉씨가 본집으로부터 나와서 轎를 타고 비씨의 집에 나아가서 막차에 들어간다. 侍女와 內侍가 시종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왕비가 연을 타기를 기다리는데, 班列의 차례에 의하여 시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⁴⁰⁾는 실록의 기록은 당시 봉영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국조오례의』에도 세자빈을 맞이할 때는 친영을,⁴¹⁾ 왕비를 맞이할 때는 봉영을⁴²⁾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종의 뒤를 이어 왕의 지위에서 혼례를 올린 왕은 성종이다. 성종은 왕이 되기 전에 혼인을 했던 恭惠王后가 1474년 사망하자, 후궁으로 있던 윤기견의 딸을 승격시켜 1477년 2월 왕비(제현왕후, 폐비 윤씨)로 삼았다. 조선 전기에는 正妃가 사망하면 외부에서 간택을 통해 왕비를 맞이하는 방식보다 후궁 출신 중에서 적임자를 승진시켜 왕비로 선택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⁴³⁾ 성종은 1479년 제현왕후를 폐위시키고 1482년에는 사약을 내렸

39) 『단종실록』, 단종 2년(1454) 1월 22일.

40) 『단종실록』, 단종 2년(1454) 1월 22일.

“媵氏詣妃氏第儀：奉迎王妃前一日，忠扈衛設媵氏次於妃氏中門外之東，西向。其日媵氏出自本第，乘轎詣妃氏第入次。侍女及內侍，侍從如常，俟王妃乘輦，依班次，侍衛如式。”

41) 『국조오례의』 권4, 嘉禮, 納嬪儀.

42) 『국조오례의』 권3, 嘉禮, 納妃儀. 『국조오례의』에는 納妃儀는 권3에, 納嬪儀는 권4에 기록하고 있다.

43)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 역시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되었다. 성종의 왕인 제현왕후와 정현왕후 모두 후궁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윤혜민, 「조선전기 繼妃 선정 방식과 그 의미」, 2013 참조.

다. 1480년 성종이 윤씨의 폐출이 불가피함을 명나라에 알리는 글에서는 윤씨를 왕비로 책봉한 날이 1477년 2월 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⁴⁴⁾ 실록의 이날 기록에는 혼례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왕비를 맞이한 것을 경축하여 사면령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⁴⁵⁾

윤씨가 폐출이 된 후 성종의 두 번째 계비가 된 왕비는 貞顯王后 윤씨였다. 정현왕후는 윤희의 딸로, 역시 후궁 출신이었다. 1480년 11월 왕비로 책봉되었다.⁴⁶⁾ 제현왕후나 정현왕후처럼 후궁 출신이 왕비가 된 경우에는 특별히 혼례를 거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실록에도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궁이 승진되어 왕비로 되는 관례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517년 중종이 계비로 文定王后를 맞이한 것이었다. 중종은 반정 후 부인(후의 端敬王后)이 연산군의 처남 신수근이 딸이라는 점 때문에 바로 폐출되자, 章敬王后를 계비로 맞이하였다. 장경왕후는 파평 윤씨 윤여필의 딸로 역시 후궁 출신이었다. 장경왕후는 1515년 원자(후의 인종)를 출산한 후 산후병으로 사망하였고, 중종은 다시 왕비를 맞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문정왕후는 1517년 중종과 혼례식을 올리고 왕비가 되었는데, 외부 간택으로 왕비를 뽑고, 성리학 이념에서 강조되는 親迎 의식을 본격적으로 거행하고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⁴⁷⁾ 친영 의식을 한 첫 사례였다.

『중종실록』에는 왕의 혼례에서 친영이 행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종실록』의 “전교하였다. ‘혼인의 예가 바른 뒤에야 군신·부자의 도리가 따라서 바를 수 있거니와, 우리나라는 예악으로서의 문물이 크게 갖추어졌으나 이 禮만은 떨치지 않으므로 내가 『국조보감』을 보건대 祖宗께서도 행하고자 하셨다. 혼인은 만세의 시작인데, 남자가 여

44) 『성종실록』, 성종 11년(1480) 12월 9일.

45) 『성종실록』, 성종 8년(1477) 2월 4일.

46) 『성종실록』, 성종 11년(1480) 11월 8일.

47)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3월 15일; 3월 24일; 7월 19일.

자의 집으로 장가들러 가는 것은 천도가 역행하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혼인의 예가 중하므로 조종께서 행하고자 하셨다는 뜻으로 傳旨을 내리라.”고 한 기록은⁴⁸⁾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친영을 행하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중종은 문정왕후를 계비로 맞이하는 혼례에 친영례를 실천하게 된 것이다. 1517년 7월 19일 중종은 冕服을 갖추고 별궁인 태평관으로 나아가 계비 문정왕후를 친영하였다.⁴⁹⁾ 이 혼례 이후 친영 의식은 왕실 혼례식의 가장 핵심이 되었고, 의례에는 친영의 장면을 그린 親迎班次圖를 꼭 그려 넣는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비 왕비가 미리 신부 수업을 받는 친영의 공간인 別宮 제도도 완전히 정착되었다. 별궁으로 활용된 공간은 처음 太平館에서 어의궁, 운현궁, 안국동으로 변화가 있기도 했다.⁵⁰⁾

선조도 왕의 지위에서 두 번의 혼례식을 가졌다. 정비인 懿仁王后 박씨는 반남 박씨 朴庇順의 딸로 1569년 선조가 왕위에 오른 후 혼례를 한 후 왕비에 올랐다.⁵¹⁾ 그러나 선조와의 사이에 소생을 얻지 못하고 1600년 황화방 별궁에서 사망하였다.⁵²⁾ 의인왕후가 사망한 후 계비로 들어온 왕비가 仁穆王后였다. 인목왕후는 연안 김씨 金悌男의 딸로 1584년 출생하였으며, 1602년 선조의 계비로 들어왔다. 인목왕후는 별궁인 태평관에서 왕비 수업을 받았으며, 7월 13일 친영례를 치루고 왕비가 되었다. 실록은 당시의 모습을 “午時에 상이 면복을 갖추고 館所⁵³⁾에서 왕비를 친영하였

48)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10월 23일.

49)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7월 19일.

50) 별궁 제도에 대해서는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 형태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참조.

51) 『선조실록』은 史草 상당수가 소실된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선조와 의인왕후의 혼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52) 『선조실록』, 선조 33년(1690) 6월 27일.

53) 당시에는 문정왕후와의 친영례에 이어 태평관이 별궁으로 활용되었다.

다. 未時 초에 상이 관소에서 돌아오고 申時 초에 중궁이 입궐하였다. 酉時에 同牢宴을 거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⁵⁴⁾

IV. 조선후기 왕실 혼례의 역사

1. 붕당정치와 연계된 왕실 혼례

조선후기에 들어오면⁵⁵⁾ 왕실 혼례도 그 틀을 잡아가고, 대부분 의례의 기록으로 남겼다. 그만큼 혼례식이 정형화되어 갔지만, 시기별로 혼례식의 변화상도 나타났다. 1623년의 인조반정은 왕실 혼례에서 주목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반정의 주체 세력은 ‘無失國婚’을 주요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反正할 때 맨 처음에 勳臣들이 모여서 맹세하는 두 가지 密約이 있었다. 그것은 國婚을 잃지 말 것과 山林을 올려 쓰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기네 형세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名實을 거두려 함이다.’ 하였다.”⁵⁶⁾고 한 『당의통략』의 기록은 은 정치 세력이 공식적으로 왕실의 혼례에 깊이 개입되고자 함을 선언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인조대에 시행된 소현세자의 혼례에서 세자빈이 교체되는 계기가 된 사례에서 단적으로 확인이 된다. “그때 마침 국혼을 정할 것을 의논하게 되었다. 여기에 동인 尹毅立의 딸이 뽑혔으나 혼신 李貴, 金白点 등이

54) 『선조실록』, 선조 35년(1692) 7월 13일.

55) 본 연구에서는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단행된 혼례부터 조선후기에 포함시켰다.

56) 이진창, 『당의통략』, 인조조.

“世傳反正初勳臣會盟有密約二事 曰無失國婚 曰崇用山林 所以固形勢 而收名實也”

애써 휘방하여 이 일을 깨뜨렸다.”는 『당의통략』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윤의립의 딸 대신에 서인 姜碩期의 딸이 세자빈이 되었고, 1627년에 거행된 혼례식의 과정은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의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인조반정 이후 최초로 행해진 왕실 혼례식인 소현세자와 서인 강석기 딸과의 혼인은 이후 효종·현종·숙종의 혼례가 서인 명문가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영조의 경우 비교적 집안이 미약한 가문의 신부를 며느리로 선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명문 가문, 특히 서인의 명망가의 딸이 왕세자빈이나 왕비로 간택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왕실 혼례는 조선 후기 치열하게 전개된 붕당정치와 결합되면서 서인이 전반적으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과도 깊은 관련성을 띠게 되었다.

19세기 왕실 혼례는 수렴청정과 세도정치의 근원이 된 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가문과 맺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조선후기 인조 시대부터 서인 명문가와 왕실과의 혼례는 지속되었지만, 19세기 들어 왕실 외척의 세력화가 보다 두드러졌다. 이제 왕이 후면에 서고 외척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운영된 것이다. 특히 정조가 아들인 순조의 혼례를 주도하면서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을 신부로 선택한 것은 안동 김씨 외척 세력이 강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동 김씨는 純元王后(순조), 孝顯王后(현종), 哲仁王后(철종)를 연이어 배출하면서 19세기 왕실을 능가하는 최대의 권력 집단이 되었다.

조선후기 왕실 혼례에서 주목할 점은 왕비의 친인척, 즉 외척의 세력이 커진 점이다. 이것은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도한 西人인 無失國婚을 선언한 이후 조선후기 왕실의 혼례에서 거의 이것이 지켜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왕비를 배출한 가문의 위상이 올라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왕의 후계 계승문제에도 왕비 집안의 영향력이 커졌다. 외척의 비대한 성장은 19세기 세도정치의 전개에도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된다.

조선후기 왕실 혼례는 규장각과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

어 있는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가례도감의궤』 중 최초의 것은 인조 5년(1627) 12월 27일 소현세자가 강석기의 딸 姜嬪과 혼인한 의식을 정리한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이며, 순종과 계비 純貞孝皇后의 혼례식을 정리한 1906년의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가 가장 나중의 것이다. 280년간 20건의 가례가 의궤로 정리되어 있는 셈이다.⁵⁷⁾

가례도감의궤는 크게 1책으로 제작된 것과 2책으로 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영조 때 『國婚定例』와 『尙方定例』가 만들어진 후 의식 절차가 보다 정밀하고 체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궤의 내용도 한층 상세해지고 분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는 모두 조선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후기 왕실 혼례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들을 접할 수가 있다.

2. 17~18세기 왕실 혼례의 주요 사례

효종은 원래 세자가 아니었던 만큼 1630년 대군 시절에 12세의 나이로, 1살 연상인 덕수 장씨 張維의 딸과 혼인하였다. 현종은 16세기 인종 이후 오랜만에 조선왕실에서 배출된 왕세자 출신의 왕이었는데, 1651년 세자의 지위에서 세자빈을 맞이하였다. 후에 현종이 왕이 되면서 세자빈은 왕비 明聖王后가 되었다.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 김씨는 왕세자빈, 왕비, 왕대비 등 3단계 과정을 모두 거친 유일한 왕비가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조선의 왕위 계승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명성왕후는 청풍 김씨로 청풍부원군 金佑明의 딸이다. 1642년 장통방에서 출생하였고, 1651년 한 살 연하의 세

57) 한영우, 신병주 외, 『규장각소장 의궤종합목록』,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참조.

자(이후 현종)와 於義宮에서 혼례를 치른 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당시 세자빈에 대해 “바로 영의정 金堉의 손녀로, 洗馬 김우명의 딸이다.”⁵⁸⁾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세자빈의 간택에 김육의 후광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자와 세자빈의 혼례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효종 2년(1651) 9월 28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납채례가 거행되고, 예물을 보내는 납징례는 10월 17일에 역시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 혼인 날짜를 알리는 고기례는 10월 27일에, 세자빈을 책봉하는 책빈례는 11월 21일에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 임금은 교명문을 사신에게 주어 신부집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11월 22일 세자빈을 맞이하여 궁으로 모셔오는 친영례가 거행되고, 이날 인정전에서 세자와 세자빈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동뢰연이 거행되었다. 그런데 잘 진행되던 혼례에 변수가 생겼다. 선조의 아들 仁興君의 喪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례식은 연기되었다. 친영례는 12월 22일에 행해졌고, 다음날 세자와 세자빈은 三殿에 朝見禮를 행하였다.⁵⁹⁾

숙종은 정비인 仁敬王后, 계비인 仁顯王后와 仁元王后, 후궁 출신으로 중전의 자리에 오르는 희빈 장씨, 무수리 출신의 궁녀로 영조를 낳은 후궁 숙빈 최씨 등을 거느렸다. 숙종과 함께 한 왕비들은 조선후기 왕위 계승의 중심에 서 있는 등 정치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숙종은 정비와 계비를 모두 서인 명문가 출신으로 뽑았다. 인경왕후의 광산 김씨,⁶⁰⁾ 인현왕후의 여흥 민씨, 인원왕후의 경주 김씨는 모두 서인을 대표하는 명문가였다.

58) 『효종실록』, 효종 2년(1651) 11월 21일.

59)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규13071).

60)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는 光山 김씨 金萬基의 딸로, 고조할아버지는 金長生, 증조할아버지는 金槃, 할아버지는 金益兼이다. 김장생의 아들 金集은 송시열의 스승으로, 광산 김씨는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명문가였다.

인경왕후는 1661년 회현방 사저에서 태어나 현종 11년(1670)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이듬해에 왕세자빈이 되었다. 왕세자빈의 간택은 궁에서 대왕대비와 왕대비 등이 처자를 불러 면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택 후 신부는 봉림대군의 사저였던 어의동 별궁으로 가서 세자빈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11세에 가례를 치른 세자빈 김씨는 3년 뒤 세자가 왕위에 오르자 14세에 왕비에 올랐으나, 원자를 낳지 못하고 2명의 딸을 두었다. 그녀는 숙종 6년(1680) 12월 26일 천연두를 앓다가 20세에 요절하고 말았다.⁶¹⁾

인경왕후 사망 후 계비로 들어온 여인이 인현왕후 민씨였다. 숙종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 인현왕후는 1667년 반송동 사저에서 출생하였다. 인현왕후는 여흥 민씨 閔維重의 딸이며, 민유중은 송시열 등과 함께 서인 노론의 핵심인물이었다. 숙종 7년(1681) 15세의 나이로 21세인 숙종의 계비가 된 데에는 그녀의 가문이 서인의 핵심이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인현왕후는 숙종의 계비이지만 정비 인경왕후가 어린 나이에 죽어 나이 차가 그리 나지는 않았다. 인현왕후가 삼간택에 뽑히자, 4월 13일에 숙종은 인정전에 나아가 영의정 金壽恒 등을 정사와 부사로 삼아 어의동 별궁(옛 봉림대군 사저)으로 청혼서를 보내는 납채례를 행했다. 당시 신부는 삼간택이 이루어지자 바로 어의동 별궁으로 가서 왕비 수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어 4월 20일에는 인정전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사신을 어의동 별궁에 보내 예물을 전달하는 납징례를 행했다. 4월 25일에는 별궁에 사신을 보내 혼인 날짜를 알리는 告期禮를 행했다. 5월 2일에는 인정전에서 신부를 왕비로 책봉하는 冊妃禮를 거행했다. 5월 13일에 숙종은 어의동 별궁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오는 親迎禮를 행했다.⁶²⁾ 궁으로 돌

61) 『숙종실록』, 숙종 6년(1680) 10월 26일; 『승정원일기』, 숙종 6년(1680) 10월 26일.

62) 『숙종실록』, 숙종 7년(1681) 5월 13일;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7월 15일: 是日 親迎舉動, 無事行嘉禮;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규13084〉, 「啓辭秩」.

아온 두 사람은 술과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하는 同牢宴을 치렀다. 이를 醮禮라고 한다. 다음날 왕비 책봉을 알리는 교서를 내렸다. 인현왕후는 화려한 집안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 숙종과 불화하게 되었고, 1689년 기사환국 때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廢庶人시키면서, 1681년의 혼례 때 지진의 경고와 七去之惡의 경계가 있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⁶³⁾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후 숙종은 후궁으로 있던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했으나, 따로 혼례식은 치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현왕후는 1694년 갑술환국 이후인 6월 1일 다시 왕비에 책봉되면서, 공식적으로는 두 번이나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유일한 사례를 기록했다. 숙종은, “마땅히 位號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미 景命이 다시 새로워졌으니, 이에 책봉하는 일을 거듭 거행한다.”고 하면서, 인현왕후 復位の 정당성을 알렸다.⁶⁴⁾ 왕비 복위 이후 혼례식은 따로 거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원왕후는 인현왕후 사망 후 들어온 숙종의 제 2 계비이다. 숙종은 왕의 지위에서 두 번이나 왕비를 맞이한 왕이 되었다. 인원왕후는 경주 김씨 金柱臣의 딸로서, 숙종 28년(1702) 16세의 나이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숙종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왕비였지만,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유명세 속에 묻힌 왕비이기도 하다. 숙종은 1702년 10월에 옥책문과 교명문을 내리고 가례를 올려 인원왕후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왕비가 가례를 마친 후 종묘에 알현하고 영녕전에도 참배하도록 했다.

63) 『숙종실록』, 숙종 15년(1689) 5월 4일.

“乃於五月初四日, 廢妃閔氏爲庶人. 於戲! 追惟六禮之辰, 地道告警, 犯此七去之戒, 禮法難容”

64)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6월 1일.

“上御仁政殿行冊妃禮, 妃受冊如儀, 時考顯宗辛丑上丙辰冊妃之典而行之, 蓋本諸五禮儀之文也. 惟致詞中, 改用復位二字, 教命文曰 ... 乾坤正而化乃行, 寔重風教之本, 日月更而人皆仰, 宜復位號之崇. 既景命之重新, 肆典冊之申舉”

경종은 세자의 지위에 있던 1696년 세자빈(端懿王后)를 맞이했는데, 당시의 혼례식은 “왕세자의 가례가 있었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초례(醮禮)를 거행하였다. 冊嬪禮·親迎·同牢儀부터 嬪朝見儀·外宣醮儀까지 다 한결같이 『오례의』의 舊儀대로 하였다.”⁶⁵⁾고 『숙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1718년 단의왕후가 사망하자, 1718년 새로운 세자빈(선의왕후)을 맞이하였다.⁶⁶⁾ 선의왕후는 1720년 경종이 왕으로 즉위한 후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영조는 1704년 11세의 나이로, 달성 서씨인 진사 徐宗悌의 딸과 혼인하였으니, 그녀가 영조의 정비인 貞聖王后 서씨로 영조보다는 2살 연상이었다. 영조는 당시 왕자 延祜君의 위치에 있어서, 정성왕후는 달성군 부인에 봉해졌다. 당시의 혼인에 대해 ‘이 혼인은 사치가 법도를 넘어 비용이 萬金으로 헤아릴 정도였다’⁶⁷⁾고 기록되어 있어, 이 혼인이 대단히 호화로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조가 계비로 맞이한 정순왕후와의 결혼식에서 철저히 사치를 방지하라고 강조한 것은 이때의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교명과 책보를 올리는 상을 수리해서 사용할 것, 輦은 副輦을 수리해서 사용할 것, 輦輿와 儀仗도 헌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⁶⁸⁾

영조는 1757년 53년 동안 해로했던 정성왕후가 사망하자, 1759년 6월 경주 김씨 金漢耆의 딸을 계비로 맞아들였다. 이때 왕의 나이는 66세, 계비는 15세였다.⁶⁹⁾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는 세 차례의 간택 과정을 거쳐

65)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 5월 19일. 당시의 혼례식은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으로도 정리되어 있다.

66) 1718년 9월에 거행된 이 혼례식은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으로도 정리되어 있다.

67) 『숙종실록』, 숙종 30년(1704) 2월 21일.

68)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규13102〉, 「啓辭秩」.

69) 왕이 계비를 맞이하는 경우, 왕의 당시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 계비와의 연령 차이

진행되었다. 6월 2일의 초간택에서는 金漢耆의 딸 등 6명을 후보로 뽑았으며, 6월 4일의 재간택에서는 김한구의 딸과 金魯의 딸, 尹得行的 딸 등 3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6월 9일 창경궁 通明殿에서 행해진 삼간택에는 김한구의 딸을 간택하였다. 간택이 끝나고, 6월 13일에 영조는 창경궁 명정전에 나아가 납채례를 거행하였으며,⁷⁰⁾ 6월 17일 영조는 원류관을 쓰고 명정전에 친림하여 납징례를 행하였다.⁷¹⁾ 6월 19일에 왕이 冕服을 갖추고 告期하였다.⁷²⁾ 그리고 영조와 정순왕후의 친영례는 6월 22일 거행되었다.⁷³⁾ 大駕가 막차로 들어간 후 승정원에서 안부를 묻는 기록에서 혼례식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⁷⁴⁾

18세기 왕실 혼례에서 특이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762년 정조가 세손 신분으로 세손빈(후의 효의왕후)를 맞이한 것이다. 세손빈에 대한 삼간택은 1761년 12월 22일에 거행되었다. 12월 26일 납채, 1762년 1월 3일 납징, 1월 7일 고기, 1월 8일 책빈, 2월 2일에 친영과 동뇌연, 조현례 등이 거행되었다.⁷⁵⁾ 왕실 혼인의 여섯 가지의 예법이 왕세손의 혼례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정조와 효의왕후의 혼례식은 『정조효의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으로 정리되었으며, 의궤의 기록에는 영조가 왕세

가 생긴다. 계비의 나이는 10대 중, 후반의 규수로 한정이 되기 때문이다. 선조는 1602년 51세 때 19세의 인목왕후를 계비로 맞았으며, 인조는 1638년 44세 때 15세의 장렬왕후를 계비로 맞이하였다.

70) 『영조실록』, 영조 35년(1759) 6월 13일.

71) 『영조실록』, 영조 35년(1759) 6월 17일.

72) 『영조실록』, 영조 35년(1759) 6월 19일.

73) 『영조실록』, 영조 35년(1759) 6월 22일;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규 13102), 「啓辭秩」.

74)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6월 22일.

“大駕還宮後, 政院·玉堂·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中宮殿, 政院·玉堂·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75) 『영조실록』, 영조 38년(1762) 2월 2일.

世子世子嬪, 自昌德宮朝見. 上御景賢堂, 行王世孫嘉禮醮戒.

손빈의 간택과 혼례의 전 과정에 깊이 개입하였음이 나타난다.⁷⁶⁾ 영조는 1759년에 거행된 자신과 정순왕후의 혼례식에서 특별히 사치 방조를 강조했던 만큼 이 혼례식에서도 사치 방지라는 영조의 국정 철학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3. 19세기 이후 왕실 혼례의 주요 사례

1800년 정조의 사망은 18세기 정치, 문화의 증흥기인 조선왕실에 암운이 드리우는 서막이 되었다. 정조의 아들 순조의 혼례식이 정조의 승하 이후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순조의 혼례는 19세기의 시작 이후에 거행되었다. 1802년 순조의 왕비로 들어온 안동 김씨 純元王后는 19세기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구심점이 되었다.

순원왕후는 1789년 5월 양생방 사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金祖淳으로, 19세기 안동 김씨 세도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순원왕후를 배출한 안동 김문은 잘 알려진 대로 19세기에 최대 閥閥로 성장한 가문이다.⁷⁷⁾ 그러한 가문의 명망은 안동 金門의 시조부터 시작하여 17·18세기에 형성되었다. 김조순과 안동 김문의 인물들이 세도정치기에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조의 김조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자신이 발탁한 김조순이 세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바랐고, 나아가 그를 세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순원왕후는 정조 때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는데, 정조가 사망함으로써 변수가 생겨 국혼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조는 사망 직전인 1800

76) 신병주, 「1762년 世孫 正祖의 혼례식과 『(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 『규장각』 30, 2007.

77) 安東 金門의 성장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경구,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구』, 일지사, 2007 참조.

년에 세자빈 간택을 명하였다. 2월에 치러진 초간택에서 김조순·徐淇修 등의 딸이 뽑혀 재간택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세자빈으로 김조순의 딸을 이미 결정하였던 듯하였다. 정조는 초간택을 마친 후 김조순에게 딸에 대한 칭찬과 함께 “경은 이제 나라의 國舅로서 처지가 전과는 달라졌으니 앞으로 더욱 자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세자빈을 그의 딸로 결정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또한 간택한 처자들의 사주를 물어보면서, 특히 이 간택에 사도세자의 유시를 받은 것처럼 현릉원 참배하던 날 밤의 꿈 이야기까지 하며 김조순의 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⁷⁸⁾

같은 해 윤4월에 치러진 재간택에서도 정조는 간택이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이 김조순의 딸을 간택한 이유에 대해 名族 출신, 사도세자의 諭示, 처자의 몸가짐 등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하였다. 이어 관례와 책봉례를 동시에 거행하고, 혼례를 12월에 치르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재간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김조순의 딸로 결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김조순의 딸이 안동 김문 출신으로 명문가의 딸다운 학식과 품행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조가 김조순에게 國舅의 지위를 부여하여 세자의 輔導를 부탁하고자 한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순조의 왕비 간택은 정조의 국상이 끝난 1802년에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하교로 재개되었다. 정순왕후는 중전 간택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여 같은 해 9월 중에 친영을 치르고, 육례는 그 사이에 시행하라고 하교하였

78) 『정조실록』, 정조 24년(1800) 2월 26일; 『승정원일기』, 정조 24년(1800) 2월 26일. “命書傳教曰, 行護軍金祖淳女, 進士徐淇修女, 幼學朴鍾萬女, 幼學申緝女, 通德郎尹守晚女, 再揀擇入之, 餘皆許婚. 上曰, 莫非天定也. 予於金祖淳家, 初未嘗屬意, 而拜園之夜, 夢兆告吉, 若有諄諄面命者, 而初則猶未解得, 久乃恍然覺悟矣. 今日揀擇時入來也, 觀其福氣滿面, 舉止天成, 宮中之人無不聳瞻, 而慈殿·慈宮亦皆一見而嘉悅, 今詢四柱宮合, 皆云大吉, 宗社無疆之休, 其將自今伊始矣. 元朝之祇拜太廟, 筮得比之觀, 其象爲比先王觀, 於是乎誕舉冠冊之儀, 而今茲嘉禮, 亦定於拜園之吉夢. 此皆皇天之攸賜也, 陟降之所命也.”

다. 그리하여 정조 24년에 중단된 세자빈 간택이 중전 간택으로 다시 치러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초간택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조대의 간택 과정을 유지한 채, 삼간택만 치르게 하였고, 정조의 遺旨대로 김조순의 딸이 간택되었다. 그리고 1802년 10월 13일에 순조가 친영을 함으로써 순원왕후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⁷⁹⁾ 당시 혼례식의 과정은 『순조순원왕후 가례도감의궤』로 정리되었으며, 화려한 가례반차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⁸⁰⁾ 순조 즉위 후 시파인 김조순에 대한 반대세력의 공세 속에서도 순원왕후는 왕비의 가 되었고, 이것은 안동 김씨 세도정치를 더욱 탄탄하게 유지시켜주는 바탕이 되었다.

순원왕후가 헌종과 철종 2대에 걸쳐 수렴청정을 하면서 안동 김씨 가문은 완전히 권력의 핵심에 들어섰다. 순원왕후의 권력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은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철종을 헌종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1851년 8월 안동 김씨 金汶根의 딸을 철종의 왕비로 간택한 것이다. 그만큼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이었다.

19세기 후반 조선왕실의 운명과 깊이 관련이 있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는 1866년 고종의 나이 15세, 명성황후가 16세 되던 해에 거행되었다. 고종은 흥선대원군과 신정왕후의 밀약에 의해 12세에 왕위에 올랐다. 고종은 왕이 된 직후에는 혼례식을 올릴 수 없었다. 철종의 3년 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중이었기 때문이다. 1866년 3월 고종은 여흥 민씨 閔致祿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혼례식의 주도권은 형식상으로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 趙氏가 잡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주도하였다.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흥 민씨 집안의 딸을 간택한 것이나, 별궁으로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雲岫宮이 활용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79) 『순조실록』, 순조 2년(1802) 10월 13일; 『승정원일기』, 순조 2년(1802) 10월 13일.

8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서는 1994년 <규13123> 본을 토대로 영인본을 간행하였는데, 앞부분에 신병주의 해제가 있다.

있다.

고종 3년(1866) 1월 1일부터 12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전국의 사족 처자들에게 금혼령이 내려졌다. 간택은 2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이날 오시(12시)에 초간택이 창덕궁 重熙堂에서 거행되었다. 후보 처자들은 분은 발라도 좋으나 얼굴에 붉은색을 칠하지는 말라는 분부에 따라 가볍게 화장하고 간택에 임했다. 초간택서 5명이 선발되어 재간택에 나갔고, 재간택은 2월 29일 손시(오전 9시)에 중희당에서 거행되어 민치록의 딸이 최종적으로 낙점되었다. 삼간택까지 가지 않고 재간택에서 왕비 후보를 정한 것은 이미 후보감이 내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택된 후 명성황후는 별궁으로 정해진 운현궁으로 가서 왕비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별궁은 주로 어의궁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대왕대비가 운현궁으로 정했다.⁸¹⁾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이 별궁으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고종의 혼례에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혼례는 육례의 절차에 따라 갖추어 진행되었다. 납채례는 3월 9일 진시에 거행되었으며, 이날 왕은 인정전에 나아가 청혼서를 신부집에 보내는 의식을 치렀다.⁸²⁾ 납정례는 3월 11일 오시에 인정전에서 거행했다.⁸³⁾ 3월 17일 오시에는 고기례를 거행했다.⁸⁴⁾ 3월 20일 오시에는 신부를 왕비로 책봉하는 책비례가 역시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⁸⁵⁾ 3월 21일 진시(오전 8시경)에 고종은 운현궁으로 가서 친영 의식을 치른 다음 왕비를 데리고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창덕궁으로 돌아온 고종과 왕비는 그날 정시(오후 1시)에 중희당에서 동뢰연을 치렀다.⁸⁶⁾ 공식적인 가례는 끝나고, 다음날 아침 대왕대비·왕대비·

81)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1월 16일;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1월 16일, “大王大妃殿傳曰, 嘉禮時別官, 以雲峴宮爲修理.”

82)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3월 9일;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3월 9일.

83)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3월 11일;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3월 11일.

84)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3월 17일;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3월 17일.

85)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3월 20일;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3월 20일.

대비에게 차례로 인사를 드리는 朝見禮를 행했다. 대왕대비는 8시, 왕대비는 9시, 대비는 10시에 인사를 드렸다.

고종과 명성왕후의 혼례식이 끝난 후, 영의정 趙斗淳을 도제조로 하는 가례도감에서는 『고종명성왕후 가례도감의궤』 2책을 편찬했다. 이 책에는 82쪽에 달하는 화려한 채색 친영반차도가 실려 있다. 종전에 판화 기법으로 그린 것과 달리, 이 반차도는 모두 水筆로 그렸다. 이전 반차도와 다른 점은 왕의 행렬 끝부분인 38면에 중부시 사령 2인과 權頭 2인을 앞세우고 大院位 轎子가 새롭게 등장하며, 왕비 행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78면에는 府大夫人 德愷(가마)이 등장한다. 대원군과 그 부인의 가마가 등장하는 것 역시 혼례식에서 대원군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⁸⁷⁾

고종은 명성황후와의 사이에서 세자 坻(훗날 순종)의 혼례는 고종 18년(1881) 금혼령을 내려, 서울에 사는 양반 처자로서 9세에서 13세까지의 여자들은 혼인을 할 수 없게 한 것에서 시작한다. 12월 9일에는 삼간택 후에 세자빈이 들어갈 집을 안국동 별궁으로 정했다. 세자빈은 세자보다 두 살 위인 11세였으며, 뒷날 純明孝皇后로 추송된다. 순명효황후는 여흥 민씨 閔台鎬의 딸로서, 왕실 외척인 명문가 출신이었다. 삼간택이 이루어지자 세자빈은 안국동 별궁으로 가서 세자빈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6월에 따른 의식이 차례로 거행되었다. 납채례는 고종 19년(1882) 2월 3일 인정전에서, 납징례는 2월 7일, 고기례는 2월 9일, 책빈례는 2월 19일에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⁸⁸⁾ 2월 21일에는 인정전에서 醮戒禮를 거행하였다.⁸⁹⁾

86)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3월 21일;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3월 21일.

“丙寅三月二十一日辰時, 大駕詣別宮, 親迎入侍時, 都承旨曹錫元, 左承旨黃鍾顯, 右承旨李元會, … 以次侍立… 上進發, 過芭子橋, 至別宮大門外. 執雁者, 下馬前行, 至下輦所. 上降輦乘輿, 至降輿所… 少頃, 上行禮, 竝依親迎儀訖. 上出次…”

87)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규13157> 「반차도」.

88)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2월 3일; 2월 7일; 2월 9일; 2월 19일.

초계례가 끝나자 세자는 바로 안국동 별궁에 가서 친영례를 거행하고 신부를 창덕궁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중희당에서 서로 술잔과 음식을 나누는 동뢰연을 거행했다.⁹⁰⁾ 가례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세자빈은 대전(왕)과 중궁전(왕비), 그리고 대왕대비(익종비)와 왕대비(현종비)에게 차례로 인사를 올리는 조현례를 거행하였다.⁹¹⁾ 이 혼례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별궁으로 안국동 별궁을 활용한 점이다. 고종은 자신은 운현궁에서 혼례식을 올렸으나,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국동 별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순명효황후가 1904년 황태자비의 지위에서 승하한 후 황태자 순종의 재혼은 1906년부터 논의되었다. 7월 4일 초간택이 거행되어 7명의 후보가 간택되었고, 탈락한 처자는 혼인이 허락되었다.⁹²⁾ 초간택 이후 두 달이 지난 9월 22일에 재간택이 이루어져 총판 尹澤榮의 딸, 교관 沈鐘燦의 딸, 부침사 成健鎬의 딸이 선발되었다.⁹³⁾ 3간택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2월 31일에 경운궁 증명전에서 이루어져 해평 윤씨 윤택영의 딸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다. 『고종실록』은 대한제국 이후에 기술된 기록인 만큼, 太子妃, 奉迎과 같은 황제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도 주목이 된다.⁹⁴⁾

혼례식은 6례를 갖추어 거행되었는데, 대한제국 시기라는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기존에 없던 納吉禮가 추가되고, 다음에 황제가 의식에

89)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2월 19일;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2월 21일.

90)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2월 21일;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2월 21일.

91)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2월 22일;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2월 22일.

92) 『고종실록』, 고종 43년(1906) 7월 4일.

93) 『고종실록』, 고종 43년(1906) 9월 22일.

94) 『고종실록』, 고종 43년(1906) 12월 31일.

“掌禮院卿金思轍奏：“皇太子妃三揀擇，已爲過行。奉迎吉日，豫爲推擇，然後納采等六禮，當爲分排擇吉矣”

참여하지 않고 황태자와 대신들이 황제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權停例(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거행하는 의식)를 따랐다. 보통 혼례식은 봄이나 가을에 거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의 경우는 추운 겨울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건강을 고려하여 의식 참가를 면제한 것이다. 셋째로 혼례식에 참여하는 신하들에게 기념 훈장으로 은장과 동장을 수여했는데, 이것은 대한제국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⁹⁵⁾

1907년 1월 8일(음력 1906. 11. 24)에 청혼서를 보내는 납채례와 問名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정사 조병호와 부사 김병익이 문서를 신부집에 전달하고, 이 사실을 대신이 황제에게 보고했다.⁹⁶⁾ 1월 11일에는 종전에 없던 납길례가 거행되었고, 다음날 예물을 보내는 납징례, 1월 23일에 고기례, 다음날인 1월 24일 책비례가 중화전에서 거행되었는데, 황태자가 이를 집행했다. 이날 황태자가 신부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오는 奉迎禮가 거행되고, 威寧殿에서 신랑과 신부가 음식을 나누는 동뢰연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이날 내전에 가서 황제에게 인사를 올리는 조현례도 치러졌다. 이렇게 책비·봉영·동뢰연·조현례를 한날에 치른 것도 전에 없었던 사례였다.⁹⁷⁾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왕실 혼례의 사례를 개관해 보았다. 왕실 혼례식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지위에서 혼례가 거행되었다는 점이다. 세

95) 『고종실록』, 고종 44년(1907) 1월 1일.

96) 『고종실록』, 고종 44년(1907) 1월 8일.

97) 『고종실록』, 고종 44년(1907) 1월 24일.

자의 신분이 가장 혼할 것처럼 보이거나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세자의 신분으로 세자빈을 맞이하는 경우도 적었다. 오히려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정변의 영향으로 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조선전기에는 왕자의 난이나 癸酉靖難과 같은 왕실의 정변뿐만 아니라, 예종이나 성종의 즉위에서 볼 수 있듯이 후계자 계승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따라서 왕세자의 지위 자체에도 변화가 많았고, 왕세자빈에서 정상적으로 왕비로 올라서는 경우가 드물었다. 비교적 정상적으로 세자가 되고 이후에 세자빈을 맞이한 문종의 경우에도 두 명의 세자빈을 폐위시키고, 세 번째 세자빈은 아들 단종을 낳다가 사망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그만큼 세자빈이 순탄하게 왕비가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 왕세자로서 첫 번째 혼례를 한 방식의 경우, 1398년의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되지 못하였고, 양녕대군 역시 세자의 신분으로 혼례를 치루었으나 왕이 되지 못하였다. 왕의 신분으로 처음 혼례를 올린 왕은 단종이었고, 이후에 왕의 지위로 혼례식을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성종이나 중종의 경우처럼 후궁을 왕비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관행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왕세자의 신분으로 혼례를 해도 왕이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그만큼 정치적 변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16세기 왕실 혼례의 경우에도 왕실의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중종반정이나 왕실 방계에서 즉위한 선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왕세자의 신분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왕세자빈을 맞이한 후 왕위에 오르는 전형적인 사례가 오히려 적었다. 한편 16세기에는 『주자가례』가 급격히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왕실 혼례에서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친영 의식이 강화되어가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조선후기 왕실 혼례식은 그 틀을 잡아가면서 정형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시기별로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조선후기 왕실 혼례의 절차와 혼례행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조선후기 왕실 혼례에 있어서 외척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도 주목된다. 인조반정 후 권력력을 잡은 서인 세력이 정권 유지를 위해 내세운 ‘無失國婚’은 혼례에 미친 외척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후 왕실 혼례에서 왕비 배출은 거의 이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왕실의 혼례는 왕비 가문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19세기 세도정치의 흐름에도 일조를 하였다. 조선후기 왕실 혼례의 구체적인 과정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로 대부분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당대 혼례식의 규모와 그 변천 과정까지 확인할 수가 있으며, 혼례식을 문화 콘텐츠 원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1.07.04. 투고 / 2021.07.16. 심사완료 / 2021.07.22. 게재확정)

[부록] 조선 왕의 혼례 사례 도표

1. 세자(세손) 지위의 혼례

왕	혼례 연도	혼례 연령	왕비	본관	부친	혼례 연령	자녀	비고
이방석 (1382-1398)			현빈 유씨					1393년 폐빈
	1397년	16세	현빈 심씨	부유	沈孝生			
양녕대군 (1394-1462)	1407년	13세	수성부부인	광산	金漢老		3남 5녀	1418년 양녕대군의 폐세자되면서 폐핀
문종 (1414-1452)	1427년	14세	휘빈 김씨	안동	金五文		무	1429년 폐빈
	1432년	19세	순빈 봉씨	하음	奉礪		무	1436년 폐빈
	1437년	24세	현덕왕후 (1418-1441)	안동	權專	20세	1남 1녀	1437년 純嬪이 폐빈 되면서 세자빈 책봉 1450년 문종 즉위로 왕비 책봉
의경세자 (덕종) (1438-1457)	1455년	18세	소혜왕후 (1437-1504)	광주	韓鶴	19세	2남 1녀	
예종 (1450-1469)	1460년	11세	장순왕후 (1445-1461)	청주	韓明澮	16세	1남	1460년 세자빈 책봉 1472년(성종3) 장순왕후로 추존됨
	1462년	13세	안순왕후 (?-1498)	청주	韓伯倫	?	1남 1녀	1462년 세자빈 책봉 1468년 예종 즉위로 왕비 책봉
연산군 (1476-1506)	1487년	12세	폐비 신씨 (?-1537)	거창	愼承善	?	2남	1487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 1494년 원손 출생 1494년 연산군 즉위로 왕비 책봉
인종 (1515-1545)	1524년	10세	인성왕후 (1514-1577)	나주	朴壙	11세	무	1524년 세자빈 책봉 1544년 인종 즉위로 왕비 책봉
소현세자 (1612-1645)	1627년	16세	민회빈 (1611-1646)	금천	姜碩期	17세	3남 3녀	
현종 (1641-1674)	1651년	11세	명성왕후 1642-1683)	청풍	金佑明	10세	1남 3녀	1651년 세자빈 1659년 왕비 책봉

숙종 (1661-1720)	1671년	11세	인경왕후 (1661-1680)	광산 金萬基	11세	2녀	1671년 세자빈 1674년 왕비 책봉
경종 (1688-1724)	1696년	9세	단의왕후 (1686-1718)	청송 沈浩	11세	무	1696년 세자빈 경종 즉위후 단의왕후로 추봉
효장세자 (진종) (1719-1728)	1727년	9세	효순왕후 (1715-1751)	풍양 趙文命	13세	무	
사도세자 (1735-1762)	1743년	8세	혜경궁 홍씨 (1735-1815)	풍산 洪鳳漢	8세	2남?	
정조(세손) (1752-1800)	1762년	11세	효의왕후 (1753-1821)	청풍 金時默	10세	무	1762년 세손빈 1776년 왕비 책봉
효명세자 (익종) (1809-1830)	1819년	11세	신정왕후 (1808-1890)	풍양 趙萬永	12세	1남	
순종 (1874-1926)	1882년	9세	순명효황후 (1872-1904)	여흥 閔泰鎬	11세	무	1882년 왕세자빈 1897년 황태자비

2. 왕 지위의 혼례

왕	혼례 연도	혼례 연령	왕비	본관	부친	혼례 연령	자녀	비고
단종 (1441-1457)	1454년	14세	정순왕후 (1440-1521)	여산	宋玆壽	15세	무	1454년 왕비 책봉
성종 (1457-1494)	1467년	11세	공혜왕후 (1456-1474)	청주	韓明澮	12세	무	1467년 세자빈 책봉 1469년 성종 즉위로 왕비 책봉
	1476년	20세	폐비 윤씨 (1455-1482)	咸安	尹起畝	22세	2남	
	1480년	24세	정현왕후 (1462-1530)	파평	尹壕	19세	1남 1녀	1473년 숙의 1480년 윤씨 폐출후 왕비 책봉
중종 (1488-1544)	1499년	12세	단경왕후 (1487-1557)	거창	愼守勤	13세	무	1506년 중종 즉위로 왕비 책봉 부친 신수근(연산군의 매부)으로 인해 반정 이후 폐위됨 1739년(영조15) 복위

	1507년	20세	장경왕후 (1491-1515)	파평	尹汝弼	17세	1남 1녀	1506년 淑儀 1507년 왕비 책봉
	1517년	30세	문정왕후 (1501-1565)	파평	尹之任	17세	1남 4녀	
명종 (1534-1568)	1545년	12세	인순왕후 (1532-1575)	청송	沈綱	14세	1남	
선조 (1552-1608)	1569년	18세	의인왕후 (1555-1600)	나주	朴應順	15세	무	
	1602년	50세	인목왕후 (1584-1632)	연안	金悌男	19세	1남 1녀	
인조 (1595-1649)	1638년	44세	장렬왕후 (1624-1688)	양주	趙昌遠	15세	무	인렬왕후 사후 왕비 책봉
숙종 (1661-1720)	1681년	21세	인현왕후 (1667-1701)	여흥	閔維重	15세	무	1681년 계비
	1689년	29세	장희빈 (1659-1701)	안동	張炯	31세	1남	
	1702년	42세	인원왕후 (1687-1757)	경주	金柱臣	16세	무	1702년 계비
경종 (1688-1724)	1718년	31세	선의왕후 (1705-1730)	함흥	魚有龜	14세	무	1718년 세자빈 1722년 왕비 책봉
영조 (1694-1776)	1759년	66세	정순왕후 (1745-1805)	경주	金漢耆	15세	무	1759년 계비
순조 (1790-1834)	1802년	13세	순원왕후 (1789-1857)	안동	金祖純	14세	2남 3녀	1802년 왕비 책봉 (1800년 초간택, 1802년 삼간택)
현종 (1827-1849)	1837년	11세	효현왕후 (1828-1843)	안동	金祖根	10세	무	1837년 왕비 책봉
	1844년	18세	효정왕후 (1831-1904)	남양	洪在龍	14세	1녀	1844년 계비
철종 (1831-1863)	1851년	21세	철인왕후 (1838-1878)	안동	金汶根	15세	1남	1851년 왕비 책봉
고종 (1852-1919)	1866년	15세	명성왕후 (1851-1895)	여흥	閔致祿	16세	4남 1녀	1866년 왕비 책봉
순종 (1874-1926)	1906년	23세	순정효황후 (1894-1906)	해평	尹澤榮	13세	무	1906년 황태자비 1907년 황후

3. 왕자 또는 일반인 지위의 혼례

왕	혼례 연도	혼례 연령	왕비	본관	부친	혼례 연령	자녀	비고
태조 (1335-1408)			신의왕후 (1337-1391)	안변	韓卿		6남 2녀	조선개국 전에 사망 1398년 정종 즉위후 신의왕후로 추존됨
			신덕왕후 (?-1396)	곡산	康允成		2남 1녀	1392년 조선개국으로 왕비 책봉
정종(영안군) (1357-1419)			정안왕후 (1355-1412)	경주	金天瑞		무	1398년 정종 즉위로 왕비 책봉
태종 (정안군) (1367-1422)	1382년	16세	원경황후 (1365-1420)	여흥	閔霽	18세	4남 4녀	1400년 2월 정안대군의 세자책봉으로 貞嬪에 봉해짐 1400년 11월 태종 즉위로 왕비 책봉
세종 (충녕대군) (1397-1450)	1408년	12세	소헌왕후 (1395-1446)	청송	沈溫	14세	8남 2녀	1418년 4월 충녕대군의 세자책봉으로 敬嬪에 봉해짐 1418년 9월 세종 즉위, 12월 왕비 책봉
세조 (수양대군) (1417-1468)	1428년	12세	정희왕후 (1418-1483)	파평	尹璠	11세	2남 1녀	1455년 세조 즉위로 왕비 책봉
성종 (잘산군) (1457-1494)	1467년	11세	공혜왕후 (1456-1474)	청주	한명회	12세	무	1467년 세자빈 책봉 1469년 성종 즉위로 왕비 책봉
중종 (진성대군) (1488-1544)	1499년	12세	단경왕후 (1487-1557)	거창	愼守勤	13세	무	1506년 중종 즉위로 왕비 책봉 부친 신수근(연산군 의 매부)으로 인해 반정 이후 폐위됨 1739년(영조15) 복위
광해군 (1575-1641)	1587년	13세	유씨 (1577-1624)	문화	柳自新	11세	3남	1608년 광해군 즉위후 세자빈에서 왕비 책봉 1623년 폐위 1624년사망

인조 (능양군) (1595-1649)	1610년	16세	인열왕후 (1594-1635)	청주	韓浚謙	17세	4남	인조반정후 왕비 책봉
효종 (봉림대군) (1619-1659)	1631년	13세	인선황후 (1618-1674)	덕수	張維	14세	1남 6녀	1645년 세자빈 1649년 왕비 책봉
영조 (연잉군) (1694-1776)	1704년	11세	정성왕후 (1692-1757)	달성	徐宗悌	13세	무	1704년 달성군부인 1721년 세제빈 1724년 왕비 책봉

[Abstract]

The cases and meanings of royal wedding ceremony in Joseon dynasty

Shin, Byung-ju

This article was written to overview the history of royal wedding in Joseon dynasty. First of all, kings of Joseon had their royal wedding ceremony in various status. Although the status of the crown prince seems to be the most common, there's only few cases because eldest legitimate son(嫡長子) rarely succeed to the throne. Rather it was more often a prince and became a king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upheaval.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there were many variables in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as seen from King Yejong or King Seongjong, as well as royal coups such as the Prince's Rebellion and Gyeyujeongnan(癸酉靖難).

In the 16th century, there were many variables surrounding the succession of the royal heir. As seen in the case of King Seonjo or King Jungjong, the typical case of ascending the throne after receiving a successor class as a crown prince and greeting the crown princess was rather unusual. Especially in the 16th century, owe to the rapid spread 《Jujagarye(朱子家禮)》, Chinyeong(親迎), which is bridegroom personally inducting the bride into his home, became the general trend not only in royal weddings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Royal wedd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becoming more formalized

but it also changed from time to time. In particular, the existing Garyedogam-uigwe(嘉禮都監儀軌) provides access to splendid and solemn royal wedding ceremonies such as wedding procedure and wedding process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 Keyword

Royal wedding ceremony, succession to the throne, Garyedogam-uigwe(嘉禮都監儀軌), taking the bride to broom's house after marriage(親迎), Jujagarye(朱子家禮)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조오례의』

규장각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가례도감의궤』

이진창, 『당의통략』

김문식·신병주,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신명호, 『조선왕비실록』, 역사의 아침, 2007.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돌베개, 2001.

신병주, 『조선왕실의 왕릉 조성』, 태창출판사, 2017.

신병주 외, 『왕실의 혼례식 풍경』, 돌베개, 2013.

심재우 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_____,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3.

양응렬, 『조선의 왕비 가문』, 역사문화, 2017.

이미선, 『조선왕실의 후궁』, 지식산업사, 2021.

이범직, 『한국중세 禮사상 연구』, 일조각, 1991.

이성미, 『嘉禮都監儀軌와 미술사- 왕실 혼례의 기록』, 소와당, 2008.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지두환 외,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 국립고궁박물관, 2015.

한영우, 『조선왕조의 의궤』, 일지사, 2005.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강문식, 「태종에서 세종대 許稠의 예제 정비와 예 인식」, 『진단학보』 105, 2008.

- 김문식, 「조선왕실의 親迎禮 연구」, 『조선왕실의 가례』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백주연, 「조선초기 王室婚禮의 정비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 신병주, 「1762년 世孫 正祖의 혼례식과 『(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 『규장각』 30, 2007.
- 심승구, 「왕실 혼례의 추이와 특성- 숙종·인현왕후 가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1, 2007.
- 윤혜민, 「조선 전기 繼妃 선정의 변천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